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6·가운데)이 14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EPL 23라운드에서 1골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0 완승에 일조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넘버2'

손흥민, 해리 케인 다음 EPL 파워랭킹 2위 올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는 손흥민이 EPL 파워랭킹 2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17일(한국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밝힌 EPL 23라운드 파워랭킹에서 9287점을 얻었다.

9676점의 팀 동료 해리 케인에 이은 전체 2위다.

손흥민은 사흘 전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시즌 23라운드에서 1골1도움으로 활약했다.

전반 26분 오리에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내준 땅볼 크로스에 발을 갖다대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 2분에는 드리블 돌파 후 해리 케인에게 완벽한 패스를 제공해 도움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10일 스토크시티와의 16라운드를 시작으로 12월14일 브라이튼 호브 엘비언전(17라운드), 12월26일 사우샘프턴전(20라운드), 이달 5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22라운드)에 이어 에버턴전까지 리그 홈 5경기 연

속골을 넣으며 2004년 제레미 데포가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4-0 승리에 기여한 손흥민은 경기 후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MOM)로 뽑혀 트로피를 받았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공격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8888점으로 3위에 올랐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알렉스 옥슬레이드 챔벌레인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K리그 클래식 3·1절 개막... '현대家 더비'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전북 현대 VS 울산 현대' 맞대결

2018 K리그 클래식이 3·1절에 막을 올린다.

1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018 K리그 클래식 정규라운드(1~33라운드) 일정을 밝혔다.

공식 개막전은 3월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우승팀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팀 울산 현대의 현대가 맞대결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수원삼성과 제주유나이티드도 같은 날 각각 전남드래곤즈 FC서울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나머지 팀들이 출격한다. 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가 3일 격돌한다.

4일에는 4년 만에 클래식 무대로 복귀한 경남FC와 지난해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상주상무가 자웅을 겨룬다.

최근 데이의 이적으로 한층 뜨거워진 라이벌 수원과 서울은 4월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첫 맞대결을 벌인다. 제주와 전북은 4월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처음 만난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K리그 최고 흥행카드인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전남과 전북의 '호남 더비' 등이 열린다.

정규 라운드 일정은 30여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 중 가장 균형 있고 공평한 스케줄을 채택한다.

주요 조건으로는 ▲동일팀과 경기 후 일정 기간 리턴매치 불가 ▲홈 또는 원정 연속경기 3회 미만 ▲ACL 출전팀 일정 고려 ▲토·일요일 홈경기 분산 개최 ▲정규 라운드와 스플릿 라운드 간 홈·원정 경기 균등 배정(불가시 정규 라운드 상위팀에 스플릿 라운드 홈 우선배정) 등이다.

한편 연맹은 효율적인 중계방송 편성을 위해 흑사기를 제외한 3~5월, 9~11월의 토·일 경기를 오후 2시와 4시로 분산배치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동계패럴림픽 기념우표 10종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우표 10종 총 80만장을 개막 50일 앞둔 오는 18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표는 패럴림픽대회의 엠블럼과 성화를 비롯해 대회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경기 모습을 담았다.

대회 엠블럼은 한국 전통의 오방



색으로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

넘은 평화와 희망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한 대회 마스코트 '반다비'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상징하고 평등과 화합에 앞장서는 캐릭터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인종, 지역 장애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하나 되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류그룹 '엑소' 두바이 사로잡다... 최초 두바이 분수쇼 주제곡 선정

한류그룹 '엑소'가 두바이도 사로잡았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18일 오후 4시(현지시간) 두바이 알마니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히트곡 '피워'를 배경음악으로 한 두바이 분수쇼의 시작을 화려하게 열었다.

한국 최초 두바이 분수쇼 음악 선정 및 첫 분수쇼 공개 기념 회견이다.

엑소가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공영방송 두바이 TV, 아랍에미리트 대표 뉴스 전문 채널 알 아라비아(AI Arabiya), 알 바얀(Al Bayan), 두바이 1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이 치열한 취재 경쟁을 펼쳤다.

이날 엑소는 기자회견에서 두바이를 처음 방문한 소감과 함께 '반다비'(안녕하세요) 등 아랍어로 인사해 호응을 얻었다.

중동 지역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함은 물론 먹고 싶은 두바이 음식과 방문하고 싶은 장소도 언급하는 등 두바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 '피워' 분수쇼 시작 전부터 대규모 분수 주변에는 수천여명의 팬이 몰려 엑소를 연호하고 노래를 합창해 눈길을 끌었다고 SM은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한류그룹 '엑소'

'피워'의 리듬에 맞춰 시원하게 뿜어가는 물줄기와 완벽하게 조화된 화려한 조명이 장관을 이루면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엑소는 "한국 최초로 두바이 분수쇼 음악으로 선정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피워"에 맞춰 펼쳐지는 환상적인 분수쇼를 실제로 보니 더욱 장관이었고 감동적이었다. 이번 분수쇼를 통해 저희는 물론 한국의 대중음악과 문화가 중동지역에서도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두바이 분수쇼에는 마이클

잭슨 '스릴러', 휘트니 휴스턴의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 아델의 '스카이폴' 등 주로 글로벌 팝스타들의 히트곡들이 음악으로 선정됐다.

SM은 "이번 '피워'의 분수쇼 음악 선정은 엑소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고 자랑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엑소가 두바이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명의 현지 팬들이 몰려 일대 혼잡을 이루는 등 현지에서도 엑소는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뉴시스

'메이즈 러너' 예매 1위... 박스오피스 지각 변동 예고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메이즈 러너:데스 큐어'(감독 웨스 볼)가 예매 순위 1위를 달리며 흥행 예고 중이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메이즈 러너:데스 큐어'(이하 '메이즈 러너')는 이날 낮 12시 현재 예매 관객수 8만2659명(예매 점유율 34.4%, 예매 매출액 7억3100만원)으로 예매 순위 선두를 유지 중이다.

재 상영 중인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3만3750명), 같은 날 개봉하는 '그것만이 내 세상'(3만179명)과의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사실상 박스오피스 1위를 예약했다.

이번 작품은 '메이즈 러너'(2014) '메이즈 러너:스코치 트라이얼'(2015)로 이어지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 편이다.

앞선 두 작품은 각각 281만명, 27만명을 불러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전

세계에서는 6억6000만 달러(약 7000억 원)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메이즈 러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류를 집어삼킨 상황에서 면역력을 가진 '러너'와 러너를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집단 '위키드의' 최후 대결이 담겼다.

딜런 오브라이언·토마스 샌스터·카야 스킨라리오와 함께 한국계 할리우드 스타 이기홍이 출연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